

## 鷄林類事의 織物關聯用語 研究 I

金 韻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Textile Terminologies in *Kei Lim Yu Sa* (鷄林類事) I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I. 緒 論

II. 麻曰三

III. 絹曰及

IV. 布曰背

V. 苧曰毛

VI. 苧布曰毛施

VII.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nd identify terminologies recorded in *kei lim yu sa*. *ma*(麻), *kyun*(絹), *po*(布), *je*(苧), and *je-po*(苧布)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o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comparative analytical methods was employed.

Some significant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ext : Hemp is called *san*(麻曰三). The word *san* of Koryo was derived from Indian *sann*, *san*, *sana*, *sun*.
2. Text : *Kyun* is called *jyi* or *kib*(絹曰及). The word *jyi*(及) of Koryo was from *jyi* or *kib*(緞) of Silla.
3. Text : Hemp cloth is called *bey*(bei), *pey*(pei), *bai*(布曰背). *Be*(背) has two meanings of hemp cloth and cloth in Korean. In the text it is interpreted as hemp cloth.
4. Text : Ramie or China grass is called *mau*, *maw*, *mao*, *mu*(毛). (苧曰毛). It is considered that the word *mau*(*mo* in Korean)(毛) in text is correct and word *mau*(毛) meaning China grass of Koryo is derived from *mah* or *mak* that is an old Egyptian name for flax or linen. The word *mau*(*mo*)(毛) of Koryo seems to be a transliteration of *mah*(or *mak*) in Korean or a variety of it.
5. Ramie cloth or China grass cloth is called *mau shy*(苧布曰毛施). Similar words to *mau shy*(毛施) of Koryo were found in Chinese, Manchurian and Japanese as well as in Ancient Hebrew.

## I. 緒 論

鷄林類事は 12世紀初 北宋의 孫穆이 高麗의 朝制, 風俗과 高麗語를 모아서 만든 一種의 高麗遊記와 高麗譯語集이다.

鷄林類事は 國語 研究 資料로서 稀有의 價値를 지녔으므로 많은 國內外 學者들 間에 이것에 대한 활발한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鷄林類事に 所收된 高麗 方言에는 服飾과 관련된 用語들을 상당수 發見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古語 研究에 많은 參考가 되는 말할 것도 없거나 服飾資料가 稀貴한 高麗服飾 研究에도 貴한 資料가 된다.

그러나 鷄林類事に 所收된 高麗 方言은 當代의 漢字로 音寫된 記錄이므로 그 中에는 이 單語들이 確實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本 研究者는 鷄林類事の 高麗 方言에 보이는 服飾관련 用語中에서 學者들이 不明이라고 하여 解讀, 解釋하지 못한 것과 또 그들의 解讀, 解釋과 意見을 달리 하는 것 中에서 衣服材料와 관련된 用語를 택하여 本論文에서 그것들을 解讀하고 解釋하는 作業을 시도하여 보려고 한다. 本 研究에서 다루고자 하는 用語들은 麻, 絹, 布, 苧, 苧布 等이다.

## II. 麻曰三

鷄林類事 他本에는 「麻曰三」이라 있는데 民國板 說郛本에서는 「麻曰麻」로 되어 있다.

大麻의 鮮初語는 「삼」이다. 柳氏物名考 三, 草에 “大麻 삼”이라 있고 訓蒙字會 上, 9에도 “삼 마 麻”라고 있다.

그러므로 民國板 說郛本の “麻曰麻”란 「麻曰三」의 誤校이며 他本の 「麻曰三」의 기록이 正確하다.

三의 漢音を 보면 다음과 같다.

1. 「廣韻」「集韻」「韻會」에 蘇甘切, 「正韻」蘇監切. 𠵼<sup>13</sup> san, sa
2. 「廣韻」「韻會」蘇暫切 𠵼<sup>13</sup> sann
3. 「韻補」疏管切. 𠵼<sup>13</sup> sen

위의 기록에 의하면 “三”의 古漢音에는 韓國語

삼(sam)에서 처럼 末音이 m 音이 아니고 n 音이다. 現代語 “三”의 漢音도 역시 san이다.

그러나 近來의 宋代音 研究者들은 “三”의 宋代音을 sam으로 推定하였다. 따라서 鷄林類事 研究者들도 鷄林類事の 高麗語 “麻曰三”이라 하는 것을 sam으로 읽었는데 그 主된 理由는 鮮初語에서 麻를 삼(sam)이라고 한데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하는 朝鮮時代의 문헌은 鷄林類事が 이루어진 때와 300여년의 時間的 間격이 있으며 言語의 변화도 얼마나 심하였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麻曰三”의 三을 朝鮮時代에 麻를 삼이라고 했다고 하여 高麗時代에도 삼이라고 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者는 “麻曰三”은 “三”의 宋代音 中에서 廣韻이나 集韻의 san 音과 廣韻과 韻會의 sann 音을 택하여 산 san 音으로 해독하고자 한다.

麻를 의미하는 이 산(san)이란 高麗語가 몇백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朝鮮語에서 볼 수 있듯이 산 音이 살 音으로 변하여 현재까지도 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면 高麗語 麻를 意味하는 「三」이라 記錄된 말은 어디에서 유래된 말일까란 의문이 생긴다.

「三」의 san, sann, sen, sa와 類似한 말이 주변언어에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그런 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들을 古漢音 三(san, sann, sen, sa) 音과 比較하여 보고 그 意味도 찾아 보아야 한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高麗語 三 音이 san, sann, sen, sa 音 中에서 san (sann)이었다고 추정한다. 이 三(san)과 比較할 수 있는 말은 san, sann, sana, sewnee, sunn 等을 발견할 수 있다.

sunn이란 말은 印度, 파키스탄, 그 外 世界의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Crotalaria juncea*라고 부르는 植物에서 얻어지는 부드러운 韌皮섬유이다. 이 섬유는 물에 불려서 얻는데 길이는 4~5 ft쯤 되고 엷은 색이 나며 광택이 있다. sunn은 先史時代부터 印度와 파키스탄에서 재배되어 왔다. sunn은 sunn hemp, Benares hemp, Bengal hemp, India hemp, itarsi, Jubbulpore hemp, Madras hemp, san hemp, sana, sewnee 等으로도 알려져 있다. san hemp는 Bengal에서 sunn을 意味하는 말로 使用된다.

*sana*는 印度에서 *sunm*을 意味하는 말로 使用된다.

위의 예에서 볼 때 *sunm*은 印度의 많은 地域 이름이 앞에 붙고 뒤에 *hemp*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hemp*는 아니다.

高麗의 麻를 일컫는 三(*san*)이란 말은 *sunm*의 異名인 *sann*, *san*등과 同一音으로 印度에서 온 말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意味도 *sunm*은 인피섬유로서 一種의 麻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의 麻는 三(*san*)이라고 발음되었던 것이 時代가 흐르면서 삼(*sam*)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 Ⅲ. 絹曰及

이 記錄은 藍格 明鈔本の 「絹曰反」을 除外하고 他本에는 「絹曰及」이라고 均一하게 나타난다.

高麗에서 「及」이라고 表音되었던 絹을 意味하는 이 말은 高麗 固有의 말은 아니었다. 高麗의 「及」이란 말은 新羅語 「靛」이란 말의 音과 意味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新羅語 「靛」이란 말이 高麗에서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鷄林類事의 저자가 「靛」의 音을 이와 同音인 「及」으로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新羅語에 靛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과 絹을 新羅에서 靛이라고 일컫었다는 것은 本 研究者의 先行研究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sup>1)</sup>.

五韻集韻에 靛, 新羅謂絹曰靛이라 기록되어 있다.

新羅語 靛과 高麗語 “及”의 音을 보면 아래와 같다. 靛音은 五音集韻에 其立切 音及 絹<sup>2)</sup> 나<sup>3)</sup> *chi*<sup>2</sup>, 혹은 *jyi*이라 있다.

高麗語 “及”音은 「唐韻」, 「廣韻」에 其立切.

「集韻」, 「韻會」에 極入切, 正韻 忌立切, 絹<sup>4)</sup> *chi*<sup>2</sup> 혹은 *jyi* 나<sup>5)</sup> 이라 보인다.

위의 예에서 “靛”과 “及”音은 同一하며 그 意

味도 同一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 볼 때 新羅에서 使用되었던 靛이란 말이 高麗에서도 그 音과 意味가 同一하게 使用되었는데 鷄林類事의 撰者 孫穆은 靛과 同音인 “及”音을 들리는 대로 取하였고 意味도 그대로 取하였음이 確實하다.

絹의 의미인 新羅語 “靛”이란 말은 高麗에서도 同音 同義語로 사용되어 鷄林類事に “絹曰及”이라고 기록되었다. 이 “靛”과 “及”은 朝鮮時代의 “絹”으로 이어져 왔다.

朝鮮時代의 “絹”이란 말은 그 의미가 광범위하였다.

그 예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김경 縑, 굴근 絹 緹, 마는 絹 중 縑<sup>6)</sup>, 김환 紉, 김 綺 綺, 김초 絹, 김견 絹<sup>7)</sup>, 김爲 絹<sup>4)</sup>, 練 <마를 비치 絹 絹고(江如練)><sup>5)</sup>, 김 두드리며(擣練)<sup>6)</sup>, 帛 吳門에서 조와 기를 옮겨(吳轉門粟帛)<sup>7)</sup>.

위의 예에서 보면 朝鮮時代의 絹이란 말은 비단의 總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現在까지도 위와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다. 絹도 비단의 總稱이기도 하다.

絹 卽 비단을 意味하는 韓國語 絹이란 말의 발달 과정은 新羅語 靛→高麗語 及→朝鮮語 絹(吉朝鮮館 譯語)→現代語 絹으로서 新羅時代부터 있어 온 말이며 이 말은 유구한 세월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도 이로써 밝혀졌다.

朝鮮館 譯語에도 “絹曰吉”이라고 있는데 吉音은 「廣韻」居質切, 音及, 「廣韻」居質切 「集韻」, 「韻會」, 「正韻」激質切 質<sup>8)</sup> 나<sup>9)</sup> *chi*<sup>2</sup>, *jyi*라 하여 漢音으로는 靛, 及, 吉은 *chi*<sup>2</sup> 또는 *jyi*로 그 音이 同一하다.

李朝語 絹을 吉(*ki*)이라고 한 것은 *kip* 音을 表示한 것이라고 하지만 絹이란 말은 靛, 及의 韓式 發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絹曰反」이란 말은 「絹曰及」의 잘못된 기록이다.

1) 金鎮玖, “新羅服飾 語彙의 研究,” 服飾文化 研究 제2권 제2호 1994, p.189-201.

2) 訓蒙字會 中, 30.

3) 訓蒙字會 中, 31.

4) 訓民正音 解例, 合字.

5) 杜初 20<sup>26)</sup>.

6) 楞嚴經 慈解 4<sup>130)</sup>.

7) 杜詩慈解 21<sup>32)</sup>.

## IV. 布曰背

布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 (1) 紵織 卽 麻紵葛織을 포함한 麻織의 總名, (2) 織物의 總稱으로서 帛과 같은 뜻이 있다. (3) 錢 卽 貨幣의 뜻이 있다.

鷄林類事的 「布曰背」는 紵織 또는 織物의 總稱 가운데 한가지 의미일 것이다. 「布曰背」의 布는 織物과 관계가 있는 이 두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紵織 卽 麻織의 意味로서 그중에서도 소위 夏布, 삼베의 意味임이 확실하다.

漢語의 背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廣韻」, 「集韻」, 「韻會」, 補妹切  
「正韻」 邦妹切 音璧 隊<sup>去聲</sup> *bey, pei*<sup>4</sup>
2. 「廣韻」, 「集韻」 蒲妹切  
「正韻」 步昧切 音佩 隊<sup>去聲</sup> *pey, pei*<sup>4</sup>
3. 「五音集韻」 補妹切, 音璧 去隊 *pei*<sup>4</sup>
4. 「國語 大詞典」 音杯 *bei*
5. 北宋汴梁(開封) 語音<sup>8)</sup> *puai*
6. William 古音 *pei, pai, pit, pat, bat*

위에서 보면 背의 漢音은 *bey, pei, pey, bei, pai, pit, pat, bat* 등이 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背의 古漢音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背의 이러한 여러 漢音 가운데에서 高麗時代의 布를 의미하였던 “背” 音은 어느 것이었는지를 확증하기는 어렵다.

朝鮮語로 布를 “뵈”라 하였으나 위에서 본 背의 古漢音에서 “뵈” 音은 찾아 볼 수 없다. 背 音은 “뵈” 音 보다는 오히려 布의 現代語인 “베” 音에 더 가깝다.

高麗時代에 布를 背라 한 것이 朝鮮語에서 찾아볼 수 있는 “뵈”와 同音인 “뵈”란 말의 音寫였는지 아니면 現在까지 溫存되어 사용되고 있는 “베”란 말의 音寫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V. 苧曰毛

「苧曰毛」에 대하여 鷄林類事的 研究者들은 「苧曰毛施」여야 하는데 毛施의 “施”字가 脫字된 것으로 보았다. 그 理由는 苧曰毛” 다음에 있는 “苧布曰毛施” 또는 “苧布曰毛施背”의 기록을 보아서 그렇고 또한 苧의 鮮初語가 모시였고 이 모시와 毛施의 音值가 同一하기 때문인 것에 있었다.

그러나 여러 鷄林類事 本<sup>9)</sup>을 살펴보면 “苧曰毛”가 아니고 “苧曰毛施”라고 記錄되어 있는 本은 아래 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本 뿐이고 다른 本에서는 “苧曰毛”로만 나타난다.

1. 香港大學 馮平山 圖書館 藏 明鈔說郛本 嘉靖年間(1522~1566)
2. 中華民國 國立中央圖書館 藏 藍格舊鈔 說郛本, 嘉靖年間(1522~1566)
3. 大東韻府 群玉 朝鮮宣祖 22年(1588)
4. 涵芬樓 校印 明鈔 說郛本(1927)  
張宗祥 校正 中華民國 16年, (1927)

康熙字典에서 毛字를 찾아보면 “高麗方言謂苧曰毛, 苧布曰毛施, 皆見 鷄林類事”라고 있다.

陳泰夏는 그의 鷄林類事研究에서 康熙字典의 「苧布曰毛施」를 「苧布曰毛施背」로 背字를 더하여 고쳐서 기록하고 康熙字典을 편찬할 때에 明鈔本 說郛와 鷄林類事 原本을 참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苧曰毛」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10)</sup>.

“苧曰毛”라고 있는 것은 “苧曰毛施”의 잘못된 기록이라고 보기보다 “毛”란 高麗語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古代 이집트語에 flax 혹은 linen을 *mah* 또는 *mak*라고 했고 漢語에도 麻와 牡麻가 있기 때문이다.

## VI. 苧布曰毛施

鷄林類事的 高麗 方言에 “毛施”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은 漢字 字義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毛施”란 말은 高麗語 그대로 적은 것이거나 高麗語音을 듣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音을 가진 漢字로 적은 것일 것이다.

8) 陳泰夏, p.772.

9) 陳泰夏, p.477.

10) 1975, p.478.

毛施란 말은 朝鮮時代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毛施란 말은 初刊 朴通事諺解 上, 51에 白毛施布, 黃毛施布란 말이 있으며 老乞大 諺解 上, 14에도 毛施布란 말이 보인다.

訓蒙字會 上 9에 苧 모시 더라 있고 中 30에 絁 모시비 시라 있을 뿐만 아니라 俗呼 苧麻布 又曰 木絲布라고 설명하였다. (內閣文庫本, 尊經閣本, 奎章閣本) 閑溪本에는 絁 모시비시 俗 苧麻布 又 末絲布라 있어 他本の 木絲布가 閑溪本에는 末絲布라고 나타난다. 末絲布란 말은 朝鮮語는 아니고 漢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絁는 纒, 纒와 같은 字이다. 「廣韻」에 繪似布, 俗作 絁라 하여 絁는 布와 類似한 繪인 것이다. 卽 絁는 綿紬, 紬를 意味하며 이것은 繪名인 것이다. 絁字에는 원래 麻나 苧 또는 苧布의 意味는 없다.

絁字는 다른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高麗圖經과 訓蒙字會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字典이나 玉篇에도 記시, 비단사(繪屬似布) (大漢韓辭典) 명주시(紬世) (廣解大玉篇)라고 있을 뿐이다.

絁字를 모시 시라고 訓蒙字會에서 해석했는데 이와 같은 意味로 絁字를 說明한 中國의 문헌은 흥미롭게도 宋代에 쓰여진 高麗에 관한 것으로서 高麗圖經인 것이다.

高麗의 紵麻布는 有名하여 宋元代의 中國人에게 널리 알려졌었다. 高麗圖經 第23卷 雜俗 2에서도 高麗의 紵麻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其國自種紵麻 人多衣布 絕品者 謂之絁 潔白如玉而 窳邊幅 王與貴臣 皆衣之.

高麗에서는 紵麻布 中에서 絕品者를 絁라 하였다는 것이다. 訓蒙字會 中 30에서 絁字에 대하여 모시 시라고 있는 說明과 비추어 보면 본래 모시란 말은 紵麻布 中에서도 가장 品質이 좋은 것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毛施란 말의 出來에 대해서는 몇가지 說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毛施布란 말은 朴通事諺解에 初刊 「貫脊稍的十箇白毛施布, 五箇黃毛施布」란 말이 보이는데

그 注에 다음과 같이 있다.

老乞大諺解上, 14에 又買了這些馬 并毛施布來了라 하고 朴通事 諺解의 저자는 毛施布란 말의 出來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毛施布, 卽 本國人呼 苧麻布之稱. 漢人皆呼曰 苧麻布, 亦曰 麻布, 曰木絲布, 或書作 沒絲布, 又曰 漂白布, 又曰 白布. 今言 毛施布, 卽 沒絲布之說也. 而漢人曰 麗人之稱, 見麗布直稱此名而呼之. 記書者曰其相稱而遂以爲名也<sup>11)</sup>.

朴通事 諺解의 저자는 毛施布 모시비란 말은 즉 朝鮮人이 苧麻布를 일컫는 말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鷄林類事의 「苧布曰毛施(背)」란 기록과 毛施란 글자까지 同一하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朝鮮時代의 毛施布란 말은 卽 漢語 沒絲布의 訛란 지적이다. 朴通事 諺解의 저자는 朝鮮의 毛施布란 말의 源流를 漢語 沒絲布에 두었다.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毛施背는 元曲인 「漁樵記」 第二折에 高麗 沒絲布라 보이는데 毛施背와 沒絲布의 毛施와 沒絲는 거의 同音에 가깝다.

苧布의 이름 가운데서 高麗方言 毛施背, 毛施布와 의미가 같고 類音인 말들을 中國과 韓國 문헌에서 찾아보면 木絲布, 沒絲布, 沒絲布, 末絲布 등이 있다. 日本語로는 苧布를 카ラムシ *kara mushi*라고 하는데 카라는 韓, *mushi*는 毛施로 카라와 ムシ가 합하여 만들어진 複合語로서 이 말은 韓半島를 거쳐서 日本으로 건너간 말이다.

위의 毛施, 木絲, 沒絲, 沒絲, 末絲는 漢語의 意味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며 어떤 外來語를 音譯한 借用語임이 확실하다.

楊聯陞은 高麗 沒絲布는 毛施布인데 毛施布란 이름은 *muslin*에서 由來되었다고 하고 *muslin*은 棉布인 반면 高麗 毛施布는 苧布라고 하였다<sup>12)</sup>.

毛施布란 말이 *muslin*이란 말에서 由來되었다는 說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 音相 면에서 *muslin* 보다 毛施란 말과 더 가까운 音相을 가진 말은 주변언어의 織物名에서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西洋의 *muslin*이란 말의 어원이 이라크의 도시 이름 Mosul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Oxford 영어 사전에 의거하면 서양에서 *muslin*에 해당되는

11) 朴通事 諺解 上, 46.

12) 楊聯陞, 老史大朴通事裏의 語法語彙, 歷史語言研究所 集刊 第 29 本 上冊, pp. 197-208.

말은 13세기에 OF *mosulin*으로 처음 나타난다. Marco Polo의 東方 견문록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鷄林類事は 西紀 1102~1104년 사이에 記述된 것으로 연구자들 사이에 추정되고 있고 單行本으로 出刊된 연대는 1111~1117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毛施”란 高麗語는 이미 西紀 1102~1104년 이전 부터 高麗人들 사이에 사용되었던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高麗의 “毛施”란 말이 *muslin*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무리라고 보인다.

또한 毛施와 *muslin*은 그 의미도 다르다. 毛施는 苧布이고 *muslin*은 綿布인 것이다.

그러면 高麗의 毛施布와 그 音相과 意味가 類似하여 比較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기 위하여 먼저 *muslin*이란 말에 대하여 시대별, 언어별 변화와 그 형태를 검토하고 다음에 毛施란 말과 비교할 수 있는 말이 다른 언어에 있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

영어 *muslin*이란 말이 시대와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형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Muslin의 시대별 언어별 형태

13세기 OF *mosulin*

17세기 Eng. *muslina, muscelin, muzlin*

17~18세기 Eng. *musling*

18세기 Eng. *musselin, musslin, mussolin*

18세기 Eng. *muslin* (F. *mousseline*, It. *mussolina, musselino*)

### 2. 毛施와 비교할 수 있는 주변언어

*Mashaju* : white cotton demask

*Mashru* : silk satin의 일종

*Masi cloth* : Fiji Islands의 *masi*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옷감, 즉 *tapa cloth*

*Maucili* : 이라크 Mosul에서 생산된 cotton *muslin*에 대한 초기 아랍어 이름

*Mausari(mausoorie)* : 얇고 거친 open weave의 면직물

*Meseri(mezzari)* : 18세기 cotton *muslin*

*Mesh* : 아주 광범위한 것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특징은 실사이의 공간에 있다.

*Meshi* Heb. 값바싼 옷감, silk, fine linen

*Musahri* : 모기장이란 뜻이 印度語

*Mushuri* : manchu. 무슈리, 苧布

*Mushajjar* : satin Fabric의 뜻으로 Punjab에서 사용되는 말.

*Musjoor* : 中央아시아에서 생산된 좋은 silk gauze

*Musa Ensete* : Abyssinian banana plant

*Musa Textilis* : Abaca 식물의 줄기로부터 얻어지는 섬유

高麗의 毛施와 比較할 수 있는 말을 찾아보기 위하여 먼저 毛施와 施字음을 살펴보고 木絲布, 沒絲布, 縵絲布, 末絲布의 木, 沒, 縵, 末字와 絲를 찾아서 毛字施字와 그 音價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毛施의 漢字음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毛字音

- 「廣韻」莫袍切「集韻」「韻會」謨袍切 音旄 豪平聲 *mau, mao*
- 「廣韻」「集韻」莫報切 音帽號去聲 *maw mao*
- 「集韻」蒙誦切 音獲虞 去聲 *mu*

#### 2) 施字音

- 「廣韻」式支切「集韻」商支切 音緹 支平聲 *shy shih*
- 「廣韻」「集韻」施智切音翅 寘去聲 *shyh, shih*
- 集韻 賞是切 紙上聲 *shyy, shih*

#### 3) 施字音

「廣韻」式支切「集韻」商支切 音施支平聲 *shy*

#### 4) 木字音

「唐韻」莫下切, 音沐, *mu*  
古音, *mot, mok* (William)

#### 5) 沒字音

- 「唐韻」莫勃切, 音殺 月入聲 *moh, mo, mei*
- 「集韻」莫佩切 音妹 隊入聲 *mey, mei*
- 「集韻」母果切, 音麼 禡入聲 *moo*

6) 毳字音

「字彙」莫胡切, 音模虞<sup>ㄇㄨˊ ㄇㄩˊ</sup>

7) 末字音

- 1. 「廣韻」莫撥切 「集韻」「正韻」莫葛切 「韻會」莫葛切 曷<sup>ㄇㄛˊ</sup> moh
- 2. 音幘 meih
- 3. 「集韻」莫狄切 音覓<sup>ㄇㄧˋ</sup> mi
- 4. 𣎵莫結切, 音蔑 𣎵沒各切, 音蔑

8) 絲字音

「廣韻」息茲切. 「集韻」「韻會」新茲切 音思<sup>ㄙㄨ</sup> sy, szu

위에서 살펴본 毛施, 木絲布, 沒絲布, 毳絲布, 末絲布의 여러 音價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毛字音 : mau, mao, maw, mu
- 木字音 : mu, mot, mok
- 沒字音 : moh, (mo), mey (mei), moo
- 毳字音 : mu
- 末字音 : moh, meih, mi
- 施字音 : shy (shih), shyh, shyy
- 繩字音 : shy
- 絲字音 : sy, szu

毛繩, 木絲, 沒絲, 毳絲, 末絲音을 위의 漢音을 가지고 재구성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left. \begin{matrix} \text{毛施는 } mau \\ \text{ } mao \\ \text{ } maw \\ \text{ } mu \end{matrix} \right\} + \left\{ \begin{matrix} shy \\ shih \\ shyh \\ shyy \end{matrix} \right.$$

$$\left. \begin{matrix} \text{木絲는 } mu \\ \text{ } mot \\ \text{ } mok \end{matrix} \right\} + sy(szu)$$

$$\left. \begin{matrix} \text{沒絲는 } moh(mo) \\ \text{ } mey(me) \\ \text{ } moo \end{matrix} \right\} + sy(szu)$$

$$\left. \begin{matrix} \text{毳絲는 } mu + sy(szu) \\ \text{末絲는 } moh \\ \text{ } meih \\ \text{ } mi \end{matrix} \right\} + sy(szu)$$

다음은 沒字와 末字의 몇 音 중에서 각각 moh, moh가 同一하고 沒字의 mey(me)와 末字의 meih 音이 거의 同一하다. 木字音 mot와 mok 音은 沒字의 moh(mo) 音, 末字의 moh 音과 類音이다.

위의 木, 沒, 毳末字音중에서 毛字音 mu와 同音은 木의 mu, 毳의 mu이다. 沒字의 moo 音도 mu 音과 同一音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絳 mu 音은 아니다.

朴滄事 諺解의 저자는 그의 저작 당시의 毛施布란 말은 卽 漢語 沒絲布의 訛라고 하였는데 그의 論據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위의 毛字와 沒字 音價를 비교하여 보면 毛字의 mu는 오히려 木音 mu와 毳音 mu와 同一하다. 施와 絲는 거의 同音에 가까우므로 毛施란 高麗語는 漢語 木絲와 毳絲에 더 가깝다. 毛施布, 木絲布, 沒絲布, 毳絲布, 末絲布는 모두 어느 한 말에서 유래된 말로서 모두 그 말의 音譯이거나 또는 변형 일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 보이는 漢字語로 구성된 말들은 漢語로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中國과 韓國 이외의 나라 言語에서 毛施, 木絲, 沒絲, 毳絲, 末絲와 類音이고 이 말들과 同一한 意味, 卽 苧布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 말은 만주어 무슈리 mushuri와 日本語 가라무시(mushi)가 있고 古代 Heb, meshi가 있다.

日本語 무시(mushi)는 高麗語 毛施의 漢音 mushy(mushyy, mushih, mushyh), 漢語 木絲 musy(muszu), 沒絲 moo sy(szu), 毳絲 musy(muszu와 거의 同音에 가까울 정도로 音價가 비슷하다. 만주어 무슈리 mushuri도 末音 리(ri)만 뒤에 더 붙어 있을 뿐이고 위의 漢語 木絲, 沒絲, 毳絲와 高麗語 毛施와 그 音이 거의 같다.

Meshi란 희브리어는 Heb. shesh와 같은 뜻이다. 이 shesh는 Byssus, 卽 fine white Egyptian linen 卽 linen thread와 linen으로 된 직물 등이다. 後代의 buts와 同義語이다. Heb. shesh란 말은 Egypt, sh's에서 차용된 말이다. 高麗圖經에서 絳麻布 絕品者를 絳라 한다고 한 것과 訓蒙字會

에서 純字를 모시 시 라고 설명한 것은 紵麻布중에서도 絕品者를 高麗에서는 特別히 純라고 하였으며 이 말은 朝鮮時代까지도 있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高麗語 純란 말은 Egypt, sh's, Heb shesh와 그 意味와 音이 유사하다. 高麗語 純는 Egypt語 sh's의 音譯이거나 Heb, shesh의 高麗語 音譯일 것으로 해석된다. 古代 이집트語로 flax나 혹은 linen을 mah(혹은 mak)라고도 했는데 이 말은 漢語 麻와도 그 音相이 거의 같고 그 의미는 同一하다.

Heb. meshi란 말은 잠언과 에스겔 16<sup>13</sup>에 나오는 말로서 “값 비싼 옷감”이라 해석되기도 하고 “silk”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던 말이다. King James 번역本에서도 이 말을 “silk”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후대의 번역本에서는 meshi를 “fine linen”으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meshi란 말의 실제 의미는 “drawn-out”란 뜻이므로 아마 “fine linen”을 의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성경 시대에 아시리아에 silk가 있었는지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古代회브리語 meshi는 高麗語 毛施, 漢語 木絲, 沒絲, 襪絲, 朝鮮語 毛施, 末絲와 音 相似이고 그 意味가 同一하다. 漢字로 표기된 위의 어휘 중에서도 Heb, meshi와 제일 가까운 것은 沒絲이다. 沒字音 중에서 mey(wei) 末字音 중에서의 meih는 meshi의 me音과 아주 비슷하다. meshi의 shi音은 絲音 sy(szu)音과 비슷하고 高麗語 毛施의 施 shi音과 同一하다.

末字音에는 meih音뿐 아니라 mi音도 있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末絲音이 漢語으로 misy(또는 mi su)로도 된다. 이 末絲音은 Heb, mishi와 語頭音이 同一하고 末絲의 語尾 絲 sy(szu)와 mishi의 shi도 音 相似이다.

Heb, meshi의 絶對形은 mishi이다.

## VII. 結 論

앞에서 論議된 것을 綜合하여 結論을 도출하고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麻曰三」의 三(san)은 sunn의 異名인 sann, san과 同一音으로서 印度에서 出來된 말이며 sunn(sann, san)은 인피섬유로서 一種의 麻인데 「麻曰

三」의 意味와 同一한 것이 발견되었다.

“絹曰及”의 “及”이란 高麗語는 新羅語 “𩇛”과 同音 同義語로서 高麗로 이어져서 사용된 말이다. 朝鮮語로 “깁”이라 하였고 현재까지도 “깁”이라고 사용되고 있다.

“布曰背”의 “背”는 천이란 의미보다는 染織 卽 麻織의 의미이다. 卽 夏布의 의미이다.

“苧曰毛”는 “苧曰毛施”의 잘못된 기록이 아니고 高麗에 苧를 의미하는 “毛”란 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高麗의 “毛施”란 말은 高麗에만 있었던 말은 아니었다. 주변언어에서 高麗語 “毛施”와 비교할 수 있는 어휘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漢語에 木絲布, 沒絲布, 襪絲布, 末絲布라 하였다. 高麗語 毛施는 위의 漢語에서 末尾의 “布”字가 빠진 木絲, 沒絲, 襪絲, 末絲와 類音이다. 위의 漢語들은 語尾에 “布”字가 붙은 複合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로 “毛施”란 말은 苧의 뜻도 있고 苧布의 뜻도 있다. 朝鮮時代에 苧布를 “모시뵈”라고도 하였다.

鷄林類事의 “苧布曰毛施”란 말은 版本에 따라서 “苧布曰毛施背”라고도 기록이 보이는데 朝鮮時代의 “모시뵈”에 해당되는 말이다.

鷄林類事に “苧布曰毛施(背)”라고 記錄으로 보이는 高麗方言 “毛施”란 말은 元代的 高麗에 대한 記錄에서는 “襪絲布”라 하여 宋代 韓人이 “毛施”로 기록한 이 高麗語를 元代的 韓人은 襪絲布라 기록하기도 했다.

鷄林類事に 高麗 方言으로 기록되어 있는 毛施란 말은 그 音價가 鮮初語 모시(moshi)와 同一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高麗의 “毛施”란 말은 漢語 木絲, 沒絲, 襪絲, 末絲란 말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말의 音譯일 것으로 해석되나 어느 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漢語 木絲布, 沒絲布, 襪絲布, 末絲布란 말은 中國語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어느 주변어에서 中國人이 借用한 말인데 그것을 위와 같이 다양하게 音譯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 Heb, meshi 또는 mishi로서 中國人이 借用하여 위와 같이 몇가지 다른 글자로 썼던 것을 中國人을 거쳐서 高麗人이 中國語에서 音譯하여 借用하였거나 아니면 Heb, meshi 또는 mishi



를 高麗人이 直接 音譯하여 借用한 것일 수도 있다.

### 參考文獻

- 강신함,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0.
- 김철현, 鷄林類事研究, 「국어국문학」 25, 1962.
- 남광우, 시개연구, 국어국문학, 제25호, pp. 3-16, 1962.
- 남광우, 고어사전.
- 노길태 언해.
- 동문유해.
- 몽어유해.
- 문선규, 조선관역어 연구, 경인문화사, 1972.
- 박통사 언해.
- 방종현, 계림유사 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55.
- 방학근,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1978.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하, 동광출판사.
- 방언집석.
-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하.
- 역어유해.
- 劉昌宣, 鷄林類事 高麗方言考, 한글, 제6권3호, pp.8-11, 昭和9年.
- 유창순, 이조어사전.
- 유창순, 鷄林類事補敎, 최현배선생환갑기념논문집, pp.131-155, 서울:思想界社, 1954.
- 왜어유해.
- 이기문, 계림유사의 일고찰, 일석 이회승선생 송수기념 논총, pp. 394-407, 서울:일조각, 1957.
- 陳泰夏, 鷄林類事研究, 서울:塔出版社, 1975.
- 崔文吉, 鷄林類事 未解讀語彙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前間恭作, 鷄林類事麗言攷, 東洋文庫論庫 3, 日本東京:東洋文庫, 大正1年(1925).
- Ka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 Williams, S.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